

알바생 70% “근무시간 서서 일한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근무시간 대부분을 서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9시간씩 서서 일하는데 짧은 휴식시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다리부종 등 관련 질병이 생겼다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전국이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알바생 515명을 대상으로 알바 중 얼마나 서 계세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시간 중 “거의 대부분 서 있다”는

휴식 위한 의자 비치 사업장 10곳 중 4.7곳 불과 4명 중 1명 항상 서 있어...절반 이상 다리부종 등

답변이 48.2%로 가장 많았고 “항상 서 있다”는 답변도 25%에 달했다.

또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일한다(15.2%)”, “업무 특성 상 대부분 앉아서 일한다(10.1%)”, “기타(1.5%)” 등의 답변이 있었다.

알바생의 휴식만을 위한 의자가 비치돼 있는 사업장은 10곳 중 4.7

곳에 불과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0조 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의자 비치 유무에 상관 없이 이들이 오래 서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36.3%)”였다. 이어 “손님이 계속

해 들어와서(32.3%)”, “업무특성 상 서있는 것이 더 편해서(13.2%)”, “고용주가 앉지 못하게 해서(11.3%)”, “기타(7.9%)” 순으로 이어졌다.

알바생 10명 중 절반 이상인 53%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탓에 질병이 생겼다고 응답했으며, 그 종류로는 “다리부종(34.4%)”이 가장 많았다. 기타 질병으로는 “발뒤꿈치 통증(18.7%)”, “허리디스크(14.7%)”, “하지 정맥류(8.5%)”, “무릎 관절염(8.2%)”, “기타(15.4%)” 등이 있었다.

뉴스스



기아차 ‘스팅어 마이 플랜 프로그램’ 선보여

구매 고객 대상 할부상품과 스크래치 보상 서비스 결합

기아자동차는 10월 스팅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기간 등을 자금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할부상품과 스크래치 보상 서비스를 결합한 ‘스팅어 마이 플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스팅어 마이 플랜 프로그램’은 고객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8개월 중 6개월 단위로 할부 기간을 설정하고 최소 1%에서 최대 70% 중 1% 단위로 유예율을 정한 뒤 0%, 3.5%(10% 선택 시), 4.5%(0% 선택 시)의 금리를 각각 적용 받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스팅어 2.0 가솔린 트림에디션(3910만원)을 48개월 할부, 유예율 70%로 설정한 경우, 2.5%(신수율 20%) 금리가 적용돼 매달 약 14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동일한 구조로

할부를 설정하는 경우, 2.2 디젤 트림에디션 모델을 월 납입금 약 15만원, 3.3 가솔린 터보GT 모델은 월 납입금 18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기아차는 ‘스팅어 마이플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팅어를 출고하는 개인고객에게 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스크래치 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장 범위는 ▲차량 전면유리 ▲전·후방 범퍼 ▲좌·우측 아웃사이드 미러 등 실생활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다.

기아차는 10월 기아레드멤버스 전용카드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며 세이프오토를 이용하거나 차량대금 50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30만원 특별 할인과 유튜브 30만원을 지원하는 ‘유튜브 다웃&다운 이벤트’도 실시한다.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신제품 출시

금호타이어가 겨울용 타이어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윈터크래프트 WP72, 윈터크래프트 WS71로, 금호타이어의 대표적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KW27, 아이젠 RV KC15의 후속 제품이다. 기존 제품의 겨울철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강화했다.

‘윈터크래프트 WP72’는 저소음, 컴포트 성능을 향상시켜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이 뛰어나다. 한국의 겨울철 노면은 눈길이나 빙판보다 눈이 살짝 녹은 슬러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윈터크래프트 WP72는 이런 도로 특성에 최적화된 성능을 내기 위해 슬러시 노면에 대한 성능을 강화했다. 지그재그 형태의 교차 그루브를 적용하여 눈길 노면에서의 제동 성능도 강화했다.

SUV 전용 제품 윈터크래프트 WS71은 SUV에 특화된 신규 비드(타이어를 휠에 장착 고정시키는 역할)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비대칭 패턴 설계를 통해 눈길, 빙판길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대폭 강화했다.

두 제품 모두 저온특성 고무를 사용하여 윈터 성능을 극대화했고, 3D 사이프(접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에 새겨진 미세한 홈)기술을 적용하여 블록 강성을 높여 핸들링과 제동 성능을 강화했다.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0일까지 겨울용 타이어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 광주점, ‘세일 속 세일’ 대규모 할인전 코리야 세일 페스타가 진행되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실리콘매장에서 고객 이혼수에 필요한 냄비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3일부터 15일까지 ‘세일 속 세일’이라는 테마로 대규모 할인전을 개최한다.

추석연휴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여전’

추석연휴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했다. 한달여 하락세를 이어가던 지방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3%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0.02%)보다 0.01% 확대된 셈이다.

전국 매매가 상승세는 지방이 견인했다. 지방 매매가격 하락세는 약 한달만에 멈춰섰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8·2대책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에 본격 접어들면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은 0.08% 상승, 지방은 보합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0.08%,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5% 올랐다.

서울 강북권(0.08%)은 매수자 관망세로 광진구 상승세는 약화된 반면 도심권 직장인 수요가 유입된 마포구와 종로구 등은 상승했다. 강남권(0.09%)은 9호선 개통효과가 있는 강동구와 화곡수요가 많은 강남구에서 상승한 반면 단기상승 부담감 여파로 송파구에서는 상승세가 주춤했다.

지방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광주와 전남, 강원은 상승세가 둔화됐다. 가을 이사수요로 충남은 상승 전환했다. 북구를 제외한 대구에서는 상승했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격은 대구(0.11%), 전남(0.10%)은 상승했다. 반면 충북(0.00%)과 세종(0.00%)은 보합, 경북(-0.14%), 경남(-0.13%), 울산(-0.08%)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다만 정비사업으로 이주수요가 발생하거나 교통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치고는 신규 입주물량 증대 영향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은 0.03%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0.03% 상승,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2%, 0.04% 상승했다.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제10차 정례회 개최

광역경제청, 기관별 현안사업 설명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유관기관 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제10차 정례회의를 11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방희석 여수시 시장, 전영재 순천부시장, 신현숙 광양부시장, 김대형 하동부군수, 박정일 여수상공회의소부회장, 서호기 순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안건으로는 전남동부권 일자리위원회 개최 및 광양세종산단 분양 홍보, 광양항 상황고교 건설사업 추진, 광양항 물동량 처리 현황,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 추진, 순천의 가을 축제 홍보, 광양의 가을여행주간

테마관광 상품 운영, 하동의 지리산 화남재 숲길걷기 등 총 11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 교환을 하였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전남동부권 일자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기관 협조사항 및 읍촌제산단 적기 개발을 위한 준설토 투기, 광양만권 관내 가을 축제 홍보 방안 등 기관별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광양만권발전협의회는 광양경제청이 간사 기관으로서 각종 현안사업 보고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공동과제 발굴 등 광양만권의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